ISO총회 사용자친화적 표준

ISO총회 사용자친화적 표준

'IT@work' 라는 주제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33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지식 경제부는 사용자편의가 높은 표준 활용방안 제시와 함께 전략적 표준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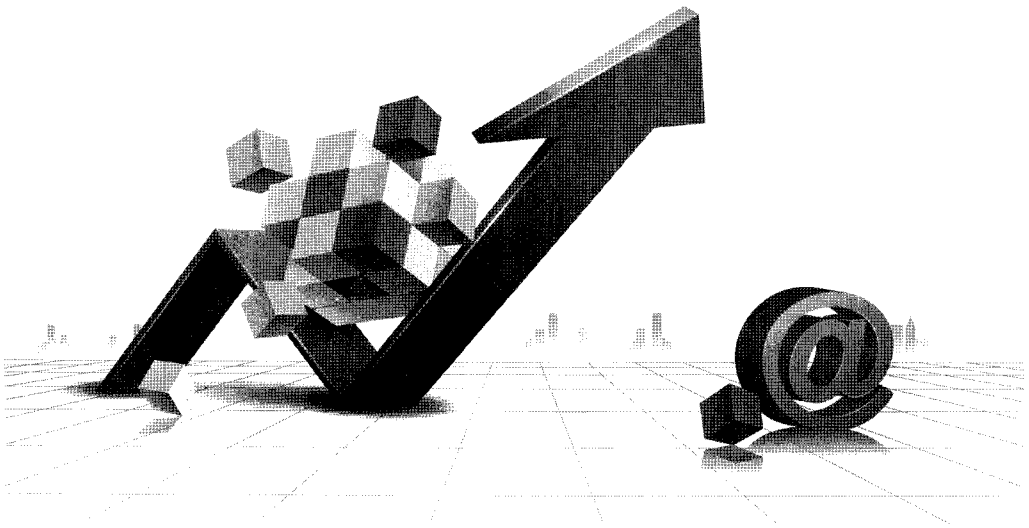
총회에 앞서 열린 전략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자 친화적 표준개발' 에 대하여 설명하고 ISO 차원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였다.

또, 총회기간 중 U-Health 등 의료서비스, 지능형 빌딩, IT산업의 미래, 개발도상국에 대한 IT 지원 및 Green IT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세계적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해결책을 찾았다.

아울러 유럽의 표준화 선도국가인 스웨덴의 SIS, 그간 협력관계가 미약했던 아프리카의 지역 표준화기구인 ARSO 및 미국의 민간 표준기관인 ASTM 등과 양자회담을 통하여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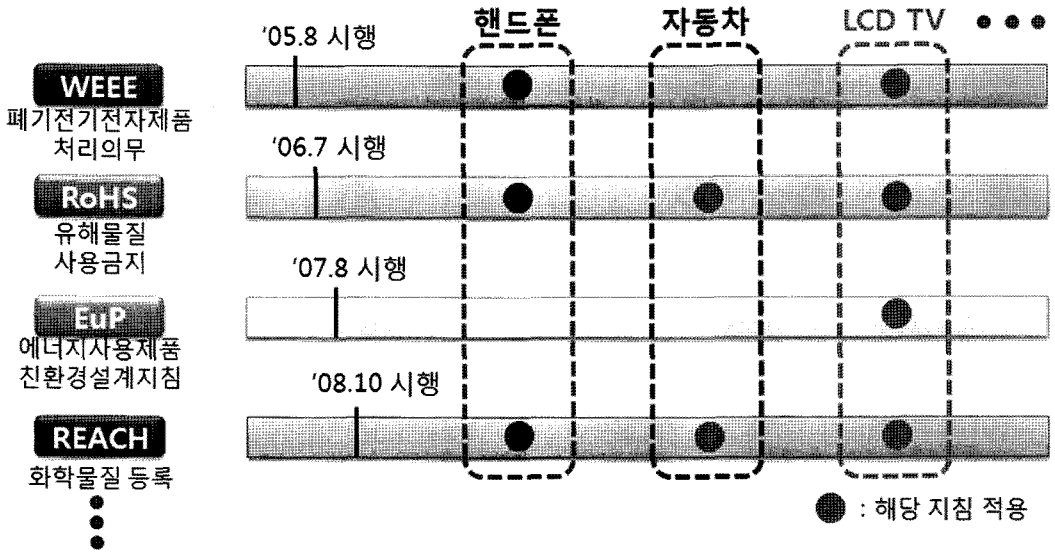
특히, ARSO와 양자회의를 통해서 아프리카 국가 IT 인력을 한국에 초청해, IT산업 현장견학을 포함한 우리 표준제도 교육지원, 아프리카지역과의 폭넓은 국제표준 협력강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미국 ASTM과는 화상교육훈련 구축, 한국 전문가 그룹 들과의 협력채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SIS(Swedish Standards Institute)는 스웨덴표준원이다. ARSO(African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l)는 아프리카표준화기구이다.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는 미국재료시험학회다.

그리고 ISO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경 기술표준원



장은 총회에 이어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2011-2015년 개도국지원 액션플랜과 2011년 ISO전략계획 이행방안을 논의하였고, 내년부터 시행될 우리나라 국가표준 기본계획에도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사회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정책사항을 결정하고 정책개발위원회를 감독한다.

사용자 친화 표준정책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표준활용에 애로가 있는 표준 사용자들이 좀 더 손쉽게 표준을 기업경영, 제품설계 등에 활용하도록 국가차원의 기반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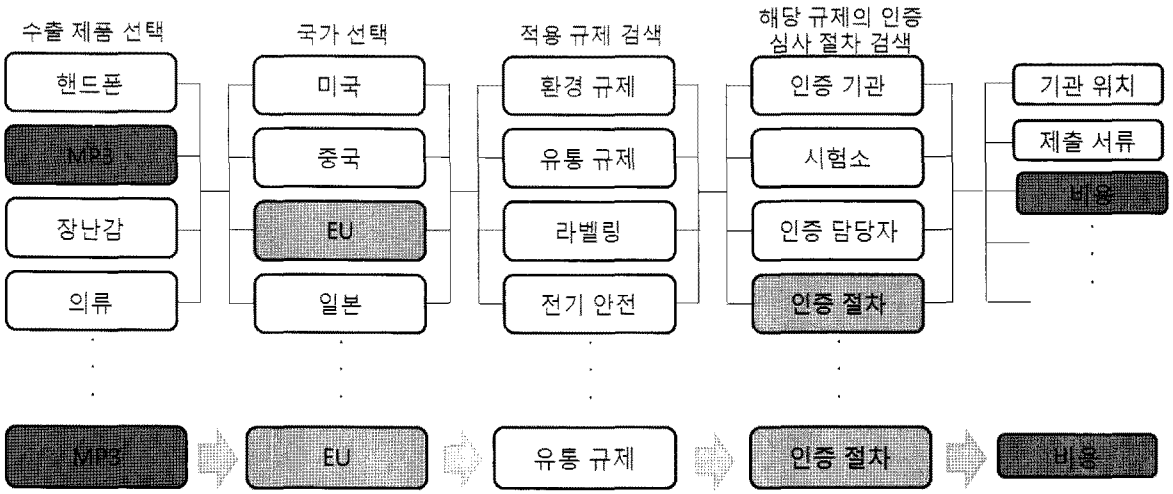
단위기술 위주의 표준화로 사용자의 표준 접근 · 활용이 어려운 것이다. 시험방법, 전달기준 등의 표준과 제품표준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편이다.

표준정보의 획득 미흡 및 잘못된 이해로 인해 R&D 완료 및 제품출시 과정에서 호환 · 적합성 등의 결함문제가 뒤늦게 발생한다. 최종제품, 서비스 단계에 적용되는 표준 · 기준 정보의 일괄 획득이 어려운 것이다.

주요 과제로 첫째, 모듈 시스템 관점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표준정보 체계의 모듈 · 시스템화를 통해 사용자가 손쉽게 관련분야의 표준정보를 종합적으로 획득하는 온톨로지 정보시스템을 개발한다.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체계분석에 따른 모듈 · 시스템 관점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기획 가이드를 개발한다.

둘째, 표준 기술규제 부합화 점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업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표준 또는 기술규제 등의 부합화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검색 · 점검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기원의 사이버설계센터, 교과부의 NTIS(과학기술종합정보망)와 연계한 표준부합화 점검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고 성과평가 후 확대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해외 기술 규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용자편의 중심의 TBT포털 개편 및 전문 TBT컨설팅사업 추진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과 고부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병행한다.

TBT포털을 법령 · 품목 · 국가별 3차원 조회가 가능토록 「제품별 재분류사업」을 추진한다. App Store 개념을 도입, 정보 제공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자기 발전이 가능한 체제를 지향한다. 정부는 초기 정보제공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민간베이스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TBT앱스토어 개념의 기술정보 거래시스템을 보면, 기술규제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체제로 구축한다.

App Store 개념을 도입, 정보 제공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 자기 발전이 가능한 체제를 지향한다. 정부는 초기 정보제공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민간베이스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TBT App Store 기능을 하는 website를 개발한다.

현재 기술정보 제공중심으로 되어있는 TBT포탈을 개편하고 TBT전문 기술컨설팅 사업을 육성한다. 개발자가 획득한 기술규제정보를 재구성 및 재편집 하여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 형태(컨설팅 정보 형태)로 변형 후 제공할 것이다.

총회 기간 중 IT관련 발표 개요를 보면, IT@health의 경우, IT의 의료정보로의 활용, 특정한 보건행정분야에서 이용, 의료기기산업에서의 IT이용이 있고, IT@building and construction의 경우, 새로운 오슬로 국립박물관의 설계공모, 스마트빌딩, 건설사의 역할 개발이 있으며, IT@it의 경우 IT산업의 미래혁명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의미가 있다. IT@개발도상국의 경우 미래도전이 있으며, IT@green의 경우 그린IT와 환경 등이 있다.

한편, 민간표준화 기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원장 : 허경)은 표준환경 및 시장수요에 신속

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표준 개발 · 관리업무를 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간중심의 표준활성화 체제 구축을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10. 9. 9(목)부터 10(금)까지 표준개발협력기관 관계자 및 정부 표준담당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표준화 기관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 비전과 전략'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초청 강연이 있었고, '엘리베이터 이용 편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준개발 전략'을 주제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발표했다. 또한, 한국조명연구원에서는 '신조명 표준화 추진 전략 및 사례' 발표를 통하여 효과적인 표준화 추진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실효성 있는 가동을 위한 추진전략, KS표준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KS표준업무 시스템 혁신방안 등 국가표준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에서는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44개 표준개발협력기관이 참여하여 정부는 국가표준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은 국가표준을 개발 · 관리하는 새로운 국가표준 행정시스템에 대한 민 · 관의 역할이 확립될 계기가 되었다.

기술표준원은 금번에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이 명실상부한 국가표준 전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성공적인 민간주도형 국가표준 운용 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이라함은 정부가 주도하던 국가표준의 개발관리 업무를 표준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의 전문기관에 이양하고, 정부는 국가표준정책에 전담하여, 기술발전 등에 따른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9월 현재 한국표준협회 등 4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